

■ 업사들이 말하는 멧돼지 사냥의 세계

“요즘엔 사냥개에 GPS 달아 목표 추적합니다”

수렵의 계절을 맞아 업사(獵師)들은 경찰서에 맡겨두었던 고가의 총기를 꺼내 닦고, 조이며 ‘멧돼지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애지중지 길러왔던, 때론 매서운 훈련을 받아온 사냥개들에게는 주인에게 보답할 기회가 주어졌다.

광주일보는 지난 1~2일 이를 동안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화순지회(회장 차길수) 소속 베데랑 회원 7명과 함께 화순 응암산과 비봉산 일대에서 펼쳐진 멧돼지 사냥을 동행 취재했다. 취재 중 업사들이 털어놓은 멧돼지 사냥에 얹힌 이야기를 정리한다.

◇멧돼지 사냥 어떻게 하나=수렵이 허용된 지난 2일 화순에서 만난 업사 김형중(57·화순군 남면)씨는 “멧돼지를 잡는 건 8할이 사냥개”라고 말했다. 김씨는 “멧돼지 사냥에 사냥개가 널리 이용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 요샌 사냥개의 위치, 속도, 총 이동거리 등을 실시간 알려주는 GPS도 나왔다”면서도 “그래도 관건은 사냥개의 역할”이라고 했다.

잘 훈련된 사냥개를 앞세우고 혼자서 멧돼지 사냥을 나서는 업사도 있지만 업사들은 보통 적어도 3명부터 8명까지 무리지어 포획에 나선다. 멧돼지가 남긴 발자국으로 공략 범위를 좁힌



들어 수렵이 공식 허용된지 이틀째인 지난 2일 화순군 비봉산 인근에서 업사들이 멧돼지 포획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뒤 100~300m 간격으로 업총을 든 업사들이 멧돼지의 뒤로를 지킨다. 사냥개와 연결된 GPS(위성항법장치)를 든 숙련된 업사가 사냥개를 앞세우고 산으로 들어간다. 사냥개가 멧돼지를 찾아내 포위하고 업사는 최후의 일격을 기하는 역할이다. 업사는 개의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업사

조승식(39·화순군 화순읍)씨는 “사냥개는 (멧)돼지를 보면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 게, 다짜고 짜 물어뜯는 게로 나뉜다”며 “후자의 경우는 제 때 사냥꾼이 멧돼지를 사살하지 않으면 사냥개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하나=지난 2일 화순

군 비봉산 자락에서 150kg은 죽히 될 멧돼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이용식(50·화순군 한천면)씨는 “멧돼지가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씨 등 업사들에 따르면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사람이 총을 쏘는 등 멧돼지를 공격하는 경우 ▲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멧돼지와 마주친 상황을 비롯한 멧돼지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 ▲울부짖거나 멧돼지의 공격 범위에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 ▲멧돼지 새끼들을 공격하는 경우 등이다.

업사들은 “멧돼지도 사람처럼 모성애가 강하고 지능이 발달했다”며 “울부짖거나 멧돼지에게 공격 가능 범위에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재빠르게 공격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업사들은 또 “최근 화순에서 멧돼지가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도는 외전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포획된 멧돼지는 600g 당(1근) 1만원 안팎에 거래되며, 업사들의 무용답(?)에 따르면 수렵기간(4개월) 동안 멧돼지 70마리를 포획, 수천만원을 부수입으로 쟁진 사냥꾼도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지역 대학생 3명 대한민국 인재상

박철호·정남·김정양



눈을 뜨고 있으며 정남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업을 해오면서도 평점 4.45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려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으로부터 졸업 시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 사랑의 쌀 전달

신세계 구학사 부회장 등 임원진은 3일 오후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내 ‘국향대전’ 행사장에서 3천만원 상당의 함평 나비쌀을 구매해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최현배기자 choi@

박재규 경남대 총장 佛 시라크재단 분쟁 방지상



장기사가 계재됐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1972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과 1998년 북한대학원 개원을 통해 북한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수행한 공로로 시라크재단이 올해 처음 선정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日 ‘전쟁포기’ 헌법 규정 폐기는 군국주의화”



근로정신대 할머니 돋는 다카하시 마코도 회장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20여년 동안 도와 온 일본 ‘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도(사진) 회장이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식을 맞아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개정’을 경계하는 인사말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다카하시 회장은 3일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일에 보낸 인사말에서 “최근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이 있다”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헌법 9조에 있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라는 헌법 규정을 폐기해 재차 군국주의 국가로 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은 ‘일본국 헌법 공포(1947년) 기념일’과 같다”며 “전쟁포기와 서약한 헌법 9조 등 국민주권, 인권을 강조한 일본국 헌법은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사랑하는 양심적 국민의 보물”이라고 평화헌법 제정의미를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카하시 회장은 “일본국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운동에 나고야 소송 지원회 회원들이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며 “과거 청간 문제와 다시는 과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헌법 9조를 지키는 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원태(전 동아여중 교장)·남순자씨·장남 범진(송원 모터스 대표)·임종보·박연옥씨·장녀 송이양=7일(토) 낮 12시 애벌루션 웨딩홀 3층.

▲함정자씨·아들 한치민군·선정식(반도여행사 대표)·정복희씨·딸혜림양=7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

▲김대웅(전 광주고검 검사장)·안숙씨·장남 강민군·박홍철·김명희씨·차녀 혁선양=7일(토) 오후 5시 서울 밀알학교 2층 도산홀.

▲정종일(전 전남여고 교사)·차남 우철(곡성군청)·신정철씨·차녀 미지(곡성군청)·양=7일(토) 오후 11시20분 양동 금호생명 3층(노블레스홀).

▲김현백·허분순씨·차남 상배군

▲복성중 제4회 동창회(회장 이

상식) 월례회=4일(수) 낮 12시30분 프라도호텔 2층(디아마트홀)

▲이범수·손정숙씨·장남 승준(남도일보 사진부 차장)군 송기원·박외순씨·장녀 난희양=7일(토) 낮 12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시아나홀.

▲나승수·이창열씨·장남 상현(대왕산업 대표)·김양길(전 한국농어촌공사)·최향옥씨·차녀 경선양=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권영순씨·차남 방성진(봉선동 자연과 바다)군 송기동·이정자씨·장녀 혁선(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8일(일) 낮 12시4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구립초등학교 제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속리산야유흥=7일(토) 오전 7시30분 광주시청 앞 출발. 010-8200-8282.

▲대촌중학교 제9회 동창회(회장 이재곤) 10회 정기총회=8일(일) 오

전 10시 모교 운동장. 019-476-3354.

▲순천고 칠광회(회장 김문기) 모임=9일(월) 오후 6시 학동 전복사랑. 062-232-3339.

▲광주인성고 3회(회장 장선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 오병준)=14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011-609-0198.

▲제11회 담양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김웅국) 정기총회=7일(토) 낮 12시 지리산학생수련관. 011-9617-3330.

▲제11회 담양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김웅국) 정기총회=7일(토) 낮 12시 광주시청 앞 출발. 010-8200-8282.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첨단산악초모임 자선바자회=7일(토) 첨단복지관 앞. 011-604-3015.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뽕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립암국립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모집

▲조선대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시민무료강좌(감기 및 신증풀류 예방요령)=7일(토) 오전 10~12시 평생교육원 203강의실. 062-230-7700~2.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뷰티아카데미 회원 모집=피부미용, 네일아트, 헤나, 메이크업, 발관리 등 자격증반·취업반·강

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수한의원 3층. 062-381-5051.

▲풋골프 동호회원 및 친선경기=발로 볼을 차 흘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김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부음

▲김판례씨 별세 정관식·명철·대영씨·모친상=발인 4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문제종씨 별세 경식·수연·지연·정연씨 부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심국씨 별세 이경선·경수·영희·미화·미순씨 모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조영수씨 별세 광석·진용씨 부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